

○…국립공원 俗離山에 편입된지 1년이 넘는 華陽洞 계곡이 안고있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85년도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37만명으로 84년의 39만 4천명보다 2만 4천명이나 감소되었는데 지난해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첫째관 점에서 관심이 컸었다. 84년 12월 27일 국립공원에 편입되었으나 1년이 넘도록 용도지구고시가 안돼 교통부 지원으로 공원 入口의 造景사업을 한것 외는 전혀 손을 못댄상태… 관광객의 휴식시설은 국립공원때와 마찬가지로. 위락시설은 찾아볼수 없고 여관 1, 여인숙 3 이 고작이라 창피할 정도.

○…이곳에는 12개의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분노수거를 피산위생사서 하나 분노처리장시설이 된곳이 별로 없어 땅을 파고 묻는가하면 심지어 뽕밭에 버리는 등 위생상 문제도 지적. 여름철에는 민박촌 30여호에 민박하나 상수도 시설도 안됐고 자가 펌프마저 수량이 달려 탐방객들이 불편을 겪고. 민박촌 사람들은 「유하식 간이상수도 시설이 시급하다」고 호소. …

○…또한 화양동계곡의 경우 수년전부터 직원을 파견, 땅을 매입해온 서울소재 신일개발이 공원지역내 7百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 국립공원 승격과 함께 공원지역으로 편입된 靑川面 관평리 임야등 약百만평을 서울소재 선익건설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공원지역은 물론 주변임야 대부분을 외지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 한다. 이곳 주민들은 외지기업들이 사리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관광지 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1. 27. 1. 30, 忠淸日報)

○…慶州南산의 관광도로가 쓸모없이 버려져 있다. 66년부터 68년까지 국토건설단에 의해 개설됐으나 10년이 가깝도록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대시설도 갖추지 않아 무용지물.

南山은 文化財의 寶庫이다. 이곳에는 남산리 3층石塔, 미륵곡석불좌상, 불곡석불좌상, 용자사곡 3층석탑등 8개의 보물을 포함 307개의 유적, 유물이 있다.

○…당국은 南山을 순환하는 관광도로를 내면 산재한 문화재를 많이 관람하리라 기대했으나 그 전망은 빛나간셈. 도로만 났을뿐 도로변에 유적, 유물을 안내하는 표지나 유적, 유물마다 안내판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 당시 도로개설을 반대했던 金朝淳씨(43. 경

주시성내동)는 「당국이 각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왕 도로를 났으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희귀식물인 『노랑어리연꽃』이 安東군 南後면 武陵洞 속칭 「암산」보트장 邱安도로변에서 1백여 포기 서식하고 있음이 서울大 李昌福명예교수(식물학)에 의해 발견,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中部以南에 서식하는 다년생 수초인 「노랑어리」 식물은 연꽃의 일종으로 公害에 弱한 보기드문 식물. 잎이 달걀형 또는 등근형이며 크기는 5~10cm로 7~9월사이에 밝은 황색꽃이 핀다. 화판의 크기는 3~4cm며 꽃잎에 털이 나고 5개의 수술이 달려 있다. [大邱每日新聞]

○…낮은 알을 집어삼켜 위장속에서 부화시킨다음 새끼를 입밖으로 뱉어내는 유일한 척추동물인 특이한 개구리(學名 레오바트라쿠스)들이 호주 「퀸즐랜드」주도 「브리스베인」北쪽 약 1천km지점 국립공원에서 처음으로 발견된지 불과 2년만에 이상스럽게도 모조리 자취를 감춰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로이터]

○…報恩경찰서는 2월13일 報恩군報恩읍 韓명등씨(32)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韓씨는 2월11일 오후 2시경 報恩읍중곡리 뒷산에서 울가미를 설치, 멧돼지 1마리(수컷 80kg)을 불법으로 잡았다고. (2. 14. 忠淸日報)

○…사적79호이며 大伽倻문화유산의 寶庫라 할 수 있는 高靈池山동 古墳群이 관리소홀로 봉분이 장마에 무너져내리고 文化財案內板이 떨어져 쇠기둥만 남아 보기 흉한 모습. 池山동 主山일대에는 대가야 고분 1백여기가 모여있고 그중 44호분등 6기가 발굴돼 금동관등 1천1백여점의 귀중한 문화재가 나온 곳이다. [大邱每日新聞]

○…鷄龍山국립공원의 동학사·갑사지구 정화사업이 사찰관광지와 걸맞지 않게 시행돼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忠南道는 동학사에 있는 계룡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건물을 비롯해 동학사에 2, 갑사에 1개소의 화장실을 슬라브건물로 신축, 사찰관광지 분위기를 흐리게 하여 국내외 관광객으로부터 빈축. (3. 10. 大田日報) [종합]